

# 단열재 단체표준규격 제정, 공동상표제도 시행계획

자주재판부(국소)는(국소)법(국소)법

## 스티로폴 단열재 시장 현황

우리나라 단열재 시장은 1970년대 중반부터 유류 파동에 의한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의 일환으로 단열대상 건물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때맞춘 건설 붐을 타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팽창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로 단열 대상 건물의 양적 증가는 물론 질적 향상에 힘입어 스티로폴은 독점품목으로 시장을 지배하였으나 1995년 이후 정부가 내장재 방화 성능 기준을 강화하면서 대기업이 생산하는 무기단열재와 불평등하게 경쟁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시장이 교란상태에 봉착하여 도산되는 기업이 속출되는 등 어려운 상태에서 IMF라는 치명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그 후, 부실기업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나 건축경기의 위축으로 수요는 감소되고 공급은 남아돌며 경쟁품목인 대기업의 무기단열재는 무차별 매체홍보와 자체 품질관리로 단열재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한 반면 스티로폴 업계는 가격 덩핑 등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품질 저하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타 단열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품질저하를 가져오는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의 고급화를 통해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스티로폴 단열재 생산 업계에 확산되기에 이르게 된다

## 공동상표 제도 추진 배경

전국의 건축 단열재 스티로폴을 생산하는 85여 개의 업체가 회원인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은 스티로폴 단열재 생산업계의 이러한 요구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단체규격을 제정하여 단체표준을 획득한 업체에게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로 품질향상은 물론,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물론 건설업계가 인지도가 부족한 중소기업 제품보다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품질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합에서는 상표를 공동으로 개발 공유하고 품질 및 디자인을 관리하여 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드력을 강화하므로 공동의 홍보 활동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기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의하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공업 품의 기술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도록

한국스티로폼공업협동조합 소속 단열재 생산업체에서는 기존의 KS규격(국가표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보다 더 높은 단열기준의 단체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조합의 단체표준규격을 통과한 제품에만 공동으로 정한 상표를 부착토록 하는 공동상표제도 시행을 위해 금년 11월말까지 설비보완 및 인증심사 등을 완료하여 늦어도 2004년 1월부터 한단계 높은 단열재를 생산 보급할 예정이다

하고 있고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단체표준 인증단체로 중소기업협동 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정하고 있다 이는 단체스스로 합리 적인 단체표준을 제정 하므로써 품질고도화와 생산효율의 향상 및 생산 기술의 혁신을 기대하는 것이다.

#### 공동상표 제도 추진 계획

공동상표제도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16조에 의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 공유하는 제도로써 조합의 단체표준과 연계하여 품질 및 디자인의 공동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하므로써 거래 단순화를 통한 업계의 판로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조합은 조합단체표준규격(KEPS M 101)과 표시허가 심사기준, 인증업무 규정의 제정을 완료하고 인증심사를 실시 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다 관련업체에서는 앞으로는 체계적인 품질검사로 소비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공동상표 지원을 신청한 공동상표제도는 브랜드 개발

을 위해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10월부터는 브랜드개발에 착수할 것이다.

신문이나 월간잡지, 건축학회 등의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종합홍보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공동상표 발표회를 개최하여 각종 전시회 등에 참가하고 공동영업활동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국내 유명 건축엔지니어링회사를 방문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직접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회원사에 전달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정보 네트워크의 구축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미 단열재 열관류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합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활용하고 있는데 공동상표가 출시되는 내년 1월부터는 단열재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건축시장에서는 경제성에서는 큰 가치를 인정받고있는 스티로폼이 기존의 KS 기준보다 더 상향된 고품질의 제품을 출시할 경우 국내 단열 재시장에서의 스티로폼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동안 단열재 시장에서 소극적인 영업으로 조금씩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던 스티로폼 업계의 향후 공격적인 경영은 다른 단열재 생산업체 등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